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GLORIOUS PLAGUE
가제 : 죽음의 찬가
저자 : Karen Heuler
출판사: Permuted Press
발행일: 2014 년 3 월 25 일
분량 : 266 페이지
장르 : 아포칼립스 소설

*"휠러는 계속해서 그녀만의 철학이 가득한 현대적 초현실주의, 마술적 사실주의 작품으로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제프 밴더 메어

* 전대미문의 독특한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어느 날 부터,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마치 승리에 도취된 듯 희망찬 목소리로 지칠 줄 모르고 노래하다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소와 곤충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증세를 연구하고 있던 할리의 엄마 데일은 갑자기 딸과의 소식이 끊기자, 딸을 찾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생각 보다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소설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대전염병 이후에 완전히 변해버린 기이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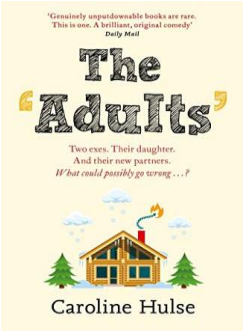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할리는 일을 하러 가던 도중,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과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할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들려오는 선명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골목에 서 있던 한 남자로 큰 소리로 복음 성가를 부르고 있었고, 할리는 그를 바라보다 그 근처 한 교회의 종탑 꼭대기에 동상처럼 굳어 있는 자세로 위태롭게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 이윽고 소방관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 남자의 얼굴과 팔을 건드렸지만, 그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리 옆에 서있던 모자를 쓴 한 남자는 자신이 어젯밤 보았던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종탑 위의 남자 역시 일종의 신흥 종교를 믿고 있는 숭배자 중 한 명이며, 저 남자 역시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시 후 종탑 위의 굳어 있던 남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밝혀졌고, 할리는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로 향했다. 할리의 고객은 오하이오로 떠날 계획을 잡은 중년 부부이며, 이들은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광우병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할리는 다음 날 아침,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행복감에 사로 잡혀 거리로 나갔다가 복음 성가를 부르고 있는 한 무리들을 보았다. 할리는 황금빛으로 물든 세상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한편 할리의 엄마 데일은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곤충과 소와 관련된 이상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일은 미리 농부 프레디에게 조사차 방문할 것임을 알리고 그의 농가로 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가축 사료를 저장하는 창고 위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프레디를 보게 된 것이다. 데일은 곧 구급차를 불렀고, 소방대원들이 데일을 바닥에 눕혔을 때 다행이 그는 살아 있었고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그가 하루 뒤면 죽을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데일은 프레디가 없는 동안 소를 돌봐 줄 이웃 농부 켄에게 대신 그의 소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데일에게 최근에 이 마을에서 두 사람이나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고, 한 사람은 산으로 올라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상한 소식을 들려주었다. 며칠 후 데일은 자신의 동료 대니마저 이틀째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데다가, 신문에서는 신흥 종교 집단이 일으킨 폭동에 관한 소식과 신경계 질환으로 사망한 200여명의 사람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죽은 채로 발견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이미 강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자 당혹감에 빠졌다. 광우병은 소나 곤충만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미치게 하고 있었고, 이미 중서부의 병원들은 포화 상태인데다 의사나 간호사들마저 목숨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데일은 곧 바로 곤충학자인 오마르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이 사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딸 할리와 연락이 끊기자 연구를 중단하고 딸을 찾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 뉴욕에 도착한 할리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썩은 시체들 더미 속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권력 체계를 형성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또한 거리에는 천사들의 모습을 한 사람들과 길을 가로질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을 한 사람도 있었고 인도의 코끼리 신 가네쉬가 새로운 뉴욕 시장 후보가 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인어와 사랑에 빠졌다며 폐허가 된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의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데일은 오마르와 더불어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어떤 이들의 편에 속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들은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미쳐 버린 것일까? 독특한 세계관과 마술적 사실주의, 공상과학 소설적 요소가 어우러진 흥미로운 아포칼립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렌 휠러 (Karen Heuler)는 O. Henry Award상과 상을 수상했으며, American Short Story award, Bellwether Award and the Shirley Jackson Award, Iowa Short Fiction award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전작 중 『Inner City』는 Publishers Weekly의 '최고의 책'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제목 : THE ADULTS
가제 : 어른이 된다는 것
저자 : Caroline Hulse
출판사: Orion
발행일: 2018 년 8 월 23 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점점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놓인 현실적이고도 많은 결함을 가진 캐릭터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소설" - 「퍼블리셔 위클리」
* "산뜻한 문체와 변화하는 관점들은 아마도 독자들이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계속 알고 싶게 만들 것이다."- 「라이브러리 저널」
* 총 14개 언어 출간, TV 시리즈 제작을 앞두고 있는 소설

클레어와 매트는 이혼한 사이였지만, 둘에게는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이유인 일곱 살짜리 딸 스칼렛이 있었다. 두 사람은 스칼렛에게 '정상적인 가족'이 누릴 법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날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파트너를 데려오고, 술에 취해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함께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 어른답게 처신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각 인물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진행되는 이 이야기는 결혼이나 이혼한 적이 없어도,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코미디 소설이다.

알렉스는 2년 전 이혼한 매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알렉스는 과학자로, 모든 것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매트가 자신에게 둘의 관계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해주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매트는 알렉스에게 전 아내인 클레어가 딸 스칼렛을 위해 노스요크셔에 위치한 한 아름다운 숲 속 숙소에서 각자 새로 사귄 파트너와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보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알렉스는 그 제안에 몹시 당황했고, 크리스마스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결코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알렉스는 매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클레어를 만나게 될 때마다 최대한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썼지만 결혼 경험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 매트와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언제나 어려운 결정은 자신에게 떠미는 매트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알렉스는 매트의 딸 스칼렛과 가까워지면 두 사람의 관계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매트와 클레어가 헤어진 후 충격을 받은 스칼렛이 상상의 토끼 친구 '포지'를 만들어냈고 겨우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당에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렉스는 곧바로 용기를 내어 클레어에게 크리스마스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가면 되는 지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클레어는 너무나 친절하게 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보다 더 성숙한 어른 마냥 구는 것 같아 알렉스 기분이 언짢아졌고, 클레어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매트가 생각해낸 것 같았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웠다.

한편 클레어와 딸 스칼렛과 함께 살고 있는 패트릭은 마흔 세 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 감각과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갖고 있는 성공한 변호사로 마찬가지로 이혼 경력에 십대인 두 아이까지 있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는 대신, 클레어의 바람대로 클레어의 딸을 비롯해 그녀의 전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을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또한 그는 이미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트 앞에서 뽐내기 위해 몇 주 안에 아이언 맨과 같은 몸을 가지길 원했고, 양궁 수업까지 신청했다.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인 클레어와 매트의 딸 스칼렛에게는 정작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비록 남들에게는 상상 속 친구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진짜 살아 있는 친구나 마찬가지인 토끼 '포지'였다. 포지는 비록 토끼지만 스칼렛만큼 키가 컸고, 스칼렛은 어른들이 자신에게 지시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자기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마다 포지와 눈길을 주고받으며 그 상황을 비웃었다. 스칼렛은 어른들이 자신을 위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칼렛은 아빠와도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고, 과학자인 알렉스가 토끼들을 상대로 약품을 투여하는 실험을 하거나 재미로 동물들을 고문하며 죽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칼렛은 알렉스가 다친 꿩을 발견하고 꿩이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손수 목을 꺾는 것을 보고 그 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인 날 스칼렛은 알렉스를 경계하기 바빴다. 패트릭은 이들과 섞여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고, 자신과 달리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매트가 클레어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질투심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알렉스도 마찬가지였다. 알렉스는 매트가 말한 바와 달리 매트가 먼저 클레어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매트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동시에 매트는 알렉스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다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패트릭이 짠 프로그램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있었던 양궁 시합에서 패트릭이 알렉스가 쏜 화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렉스는 왜 매트도 아닌 그에게 화살을 겨눈 것일까? 혹시 일부러 그에게 화살을 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실수였을까? 모두다 성숙한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서로의 의심과 아집 때문에 결함 많은 인간으로 파국을 맞는 블랙코미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롤라인 헐스 (Caroline Hulse)는 맨체스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The Adults』는 그녀의 데뷔작이며 두번째 작품으로는 『Like a House on Fire』가 있다.

제목 : THE FIELDS

가제 : 그날 밤, 들판에서

저자 : Erin Young

출판사: Hodder

발행일: 미정

분량 : 361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소설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 셀러 저자의 신작, 6-Figure 딜로 계약

* 영화 'GONE GIRL'과 리즈 위더스푼 주연 드라마 'BIG LITTLE LIES'을 제작한 브루나 파판드레아, 영화 메멘토를 제작한 제니퍼 토드가 연출을 맡은 TV 드라마 제작 예정인 소설

아이오와의 한 옥수수 밭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곳은 콘 벨트(옥수수 지대, 옥수수가 많이 나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핵심지로, 몇몇 농가에서 거대 농장 기업들에 맞서 겨우 옥수수 농업을 이어 가고 있는 곳이었다. 얼마 후, 최근 블랙 호크 카운티 보안관 수장으로 승진한 라일리 피셔 경사가 현장에 도착하고, 그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이 사건이 단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얽힌 개인적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라일리는 이제 동료 로건과 함께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엄청난 현장감과 정치적 음모,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스릴러 소설이다.

라일리 경사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옥수수 밭으로 가던 중, 미국의 가장 큰 농업 회사 중 하나 인 '애그리-코 (Agri-Co)'의 표지판을 보았다. 이 농업 회사는 거의 미국 전체의 국가 종자 개발 및 농약의 주요 공급 업체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 콘 벨트에는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농장이 거의 없었다. 한편 라디오에서는 주지사 후보인 현 주지사 빌 해밀턴과 상원 의원 제스 쿡 두 사람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빌 해밀턴은 변호사인 라일리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일리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미국의 대규모 농업 기업들과 오랜 연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제스 쿡은 농민의 딸이자 환경 보호주의자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장하는 인물로, 거대 농업 기업들과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빌 해밀턴에 대항해 작지만 강력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고 있는 후보였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조차 거대 농업 기업들이 유독성 살충제와 비료로 미국의 땅과 사람들의 건강을 점점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시신이 발견된 제퍼 농장에 도착했다. 이 농장은 협동조합 농장으로 주 전역을 휩쓸고 있는 거대 농업 회사 애그리-코의 무시무시한 확장 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작은 농장이었다. 현장에 있던 농장 주 존 브라운의 설명에 따르면 애그리-코는 자신들의 소속 농장에 옥수수를 심은 다음 일정 시기가 되면 그 옥수수들을 죄다 실험실에 가져갔고 소속 농장주들은 자신들의 작물이 그 곳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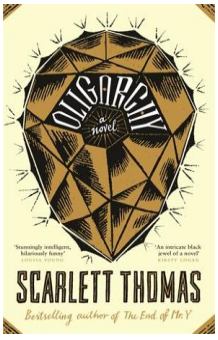
사담을 마친 존은 라일리에게 얼마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작물 드론을 통해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드론은 존의 농장 것이 아니라 애그리-코 소속의 다른 농장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오늘 아침 존이 농장에 나타났을 때 그 드론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고, 드론 속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던 중 문제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뜨거운 열기 속에 거의 부패 직전 상태인 그 시신의 목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었고, 몸 전체가 무언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것만 같았다. 라일리는 곧 회색 빛이 된 시신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 클로이라는 것을 알아 챘다.

라일리는 부검을 통해 클로이의 사인이 과다 출혈이며, 목과 허벅지, 팔에 난 상처들이 무언가에 물려 찢겨 나간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부검의조차 한 번도 본적 없는 형태의 상처였다. 라일리의 동료들은 클로이의 불륜을 의심한 그녀의 남편이자 생명공학자인 제임스가 그녀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혹은 애그리-코에 맞서 새로운 종자 개발 대회를 앞둔 존이 경쟁 상대인 애그리-코에서 곡물 유전자 변형 업무를 맞고 있는 제임스를 노리고 클로이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도무지 확실한 살해 동기와 용의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육류 포장 공장에서 약물 중독자이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인 니콜 킹의 시신까지 발견되었다. 니콜과 클로이는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진 여자들이었지만, 시신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뜯겨져 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게다가 니콜의 시신은 사후에 상처가 난 흔적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처 안에서 인간의 치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세포 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라일리는 결국 클로이와 니콜을 죽인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 후, 그레이시 포스터라는 십대 소녀까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DNA 검사 결과, 희생자들의 치아에서 나온 세포들은 한 명이 아닌 두 남자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은 그레이시의 엄마와 연인 관계였던 남자의 것이었다.

한편 선거 운동에서 제스 쿡에게 밀리고 있던 주지사 빌 해밀턴 집에 있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라일리를 찾아와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으며 제임스는 미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인물이니 용의자 선상에서 그를 제외해달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라일리는 이 사건이 연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정치계는 물론 암암리에 사람들과 땅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대 농업 기업과 연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라일리는 어린 시절 친구 미아를 통해 클로이가 아니라 제임스가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예측할 수 없는 줄거리가 주는 흥분과 소름 끼치는 현장감과 속도감이 가득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에린 영 (Erin Young)은 가명이며, 본명으로 활동할 당시 전세계 19개 언어로 번역된 선데이타임즈 베스트 셀러의 작가이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장르의 소설에 도전하고자 한다.



제목 : OLIGARCHY
가제 : 사라진 소녀들
저자 : Scarlett Thomas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9년 11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영화 킹스 스피치를 제작한 바 있는 시소 필름에서 TV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인 소설 .
* "저자의 문체는 펀치감과 재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화문은 정통을 찌른다."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사악하게 웃기는 소설. 기숙학교의 친숙한 구성요소들을 전복하여 큰 재미를 만들어 냈다. 이 소설은 반드시 드라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더 타임즈

러시아의 올리가르치 (oligarch, 고대 그리스에 존재한 소수자에 의한 정치 지배(과두정치)를 뜻하는 '올리가키'의 러시아어식 표현으로, 러시아의 신흥 재벌을 가리킨다.) 집안의 딸 나타샤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한 영국식 컨트리 하우스에 도착했다. 기숙학교인 이 곳에서 나타샤는 이 학교 교장이 말라빠진 소녀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타샤는 이 곳 소녀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비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하며 섭식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비앙카마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나타샤는 이 학교에 대해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학교 복도에 걸려 있는 한 귀족 여인의 그림에 관한 흉흉한 소문까지 나타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학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여지고 있는 것일까? 어딘가에 간절히 속하고 싶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특권층 십대 소녀들의 삶을 신랄하고도 우스꽝스럽게 포착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 소설이다.

나타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타샤는 이제 영국에서 살게 된 외국인이었고 화폐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낯선 공간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할 것 같았다. 게다가 나타샤는 사실 가난한 어머니 아래에서 홀로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올리가르치인 아버지가 신흥부자라는 것 외에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었다. 나타샤는 그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온 것이었을 뿐, 기숙학교는 물론이고 부와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나타샤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 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첫 날 룸메이트는 나타샤의 상대적으로 두꺼운 허벅지를 가리키며 허벅지 양쪽이 절대 닿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이 있었고, 심지어 매주 월요일마다 모든 학생들이 리사라는 아이가 개발한 식단에 맞춰 감자, 과일은 제외하고 통밀빵에 스프레드만 발라먹곤 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은 서로가 입은 옷, 외모, 갖고 있는 재력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밤이 되어 학교의 모든 불이 꺼지면 마을에 사는 남자아이들이 늑대처럼 창문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빛나는 머릿결에 완벽한 가슴을 가진 프랑스 출신 티파니를 보기 위해 난리 법석을 피웠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모여 포르노 영상을 보느라 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나타샤와 친구가 된 비앙카만큼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언제라도 부러질 것만 같은 몸을 가진 비앙카는 리사의 식단도 따르지 않았고, 모두가 잠든 밤이면 학교 건물에 남아 있는 옛 하인들이 통로를 따라 밖으로 나가서 민들레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게다가 비앙카는 교복 치마를 허벅지 중앙에까지 올리지 않고, 교칙에 따라 종아리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입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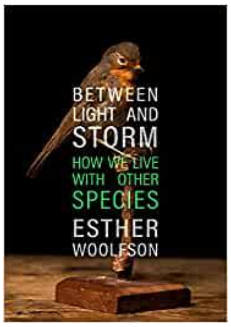
이 학교에는 어디에나 '오거스타 공주'로 불리는 화이트 레이디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슬픈 이야기가 숨어있었다.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은 원래 브렌트 스펜서 경이었는데 어느 날 그는 바로 이 오거스타 공주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오거스타 공주가 자신에게 검은 다이아몬드를 준 술탄에게 이미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고, 그녀와 결혼하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함께 살다가 어느 붙잡히는 바람에 스펜서 경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오거스타 공주 역시 호수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사실 비앙카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나타샤만큼은 비앙카는 이 오거스타 공주를 동경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빛을 가져가 순수하게 만들어 줄 그 검은 다이아몬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나타샤는 학교에서 외박을 허락한 날을 맞아 태어나 한번도 본적 없는 고모 소냐를 만났다. 소냐는 성공한 CEO로 모든 것에 있어 능숙해 보였다. 나타샤는 그녀를 바라보며 하루 빨리 자신도 사람을 상대하는 법은 물론 세상의 이치에 밝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모의 생활 방식은 학교에서 보았던 다른 아이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모는 먹는 것에 대해 열정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나타샤가 건강하고 책임 있는 젊은이로 성장하기만을 바랐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나타샤는 학교의 암묵적인 질서에 대해 더욱 답답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게다가 비앙카는 물론 교장실에 찾아갔던 티파니, 그리고 생물학 선생님까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안에서는 오거스타 공주의 유령이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까지 점점 퍼지고 있었다. 또한 얼마 후 학생들의 섭식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도착하고 나타샤는 친구들을 모아 실종 사건들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자기발견, 소속감, 또래 압력, 소셜미디어에 관한 기괴한 농담이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칼렛 토마스 (Scarlett Thomas)는 1972 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전 작으로는 베스트셀러 『The End of Mr. Y』,『 Bright Young Things』, 『PopCo』, 『Our Tragic Universe』 및 『The Seed Collectors』가 있다. 현재는 University of Kent의 문예 창작 및 현대소설과 교수이다.

NON-FICTION



제목 : BETWEEN LIGHT AND STORM
가제 : 우리가 몰랐던 이웃들
저자 : Esther Woolfson
출판사: Granta Publications Ltd
발행일: 2020년 9월 3일 예정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인문, 동물

*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운 지성이 담긴 책, 심오하고도 감동적인 중요한 책이다. -『Wilding』의 저자, 이사벨라 트리
*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의적절한 책으로 주변의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동물과 내가 어떻게 관련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책." -프란스 데 왈

에스더 울프손은 까마귀에 대해 다룬 이전 저서에서 우리가 늘 불길한 존재, 도둑으로만 여겼던 까마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영특한 존재인지 밝혔다. 이번 책에서도 역시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 애버딘의 자연 속에서 1년간 머물며 그 도시에 숨어 있는 동물들, 특히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들의 숨겨진 모습들을 밝혀냈다. 그 동물들 중에는 바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쥐, 비둘기, 거미, 갈매기, 참새, 여우, 심지어는 민달팽이도 있다. 이 '숨어 있던' 동물들은 우리와 분명 같은 주거 환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 생물들은 말한다. 이 동물들은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차마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다. 우리는 저자의 시선을 통해 그 동안 평범하게만 보였던 것들을 비범한 것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보게 된다. 저자는 붉은 여우, 청어 갈매기가 얼마나 흥미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까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인지, 쥐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들인지, 반면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날아다니는 쥐'에 가까운 새라는 놀라운 사실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지구상의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선사시대에 살았던 인간들과 동물들 간의 상호 작용을 보여준다. 또한 동물의 왕국과 관련된 인간의 영혼과 양심의 개념 형성 과정, 천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과 더불어 인간이 인간 존재의 우월성을 어떻게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이어 그녀는 예술에서 동물을 표현해 온 역사, 인간이 동물을 식품으로서 소비해 온 여정, 동물 실험, 과학과 스포츠 속에서 나타난 동물의 의미, 도살의 역사, 반려 동물에 대한 애정과 그들을 향한 소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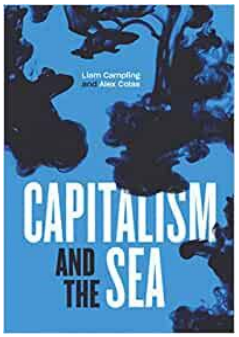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과 신학, 예술, 역사, 동물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개인적인 일화들을 바탕으로, 동물을 둘러싼 가장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열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물을 인간보다 하등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공유하는 동료 피조물로 여기고 그들과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자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1장.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
2장. 별거
3장. 영혼
4장. 피
5장. 권리
6장. 박물관
7장. 전통
8장. 사냥
9장. 코트
10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저자 소개>

에스더 울프손 (Esther Woolfson)은 글래스고에서 자랐으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와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했다. 그녀는 Scottish Arts Council Travel Grant에서 지원금을 받은 바 있으며 저작으로는 『Corvus: A Life with Birds』와 Thwaites Wainwright Prize of Nature and Travel Writing 수상작 『Field Notes from a Hidden City』이 있다.



제목 : CAPITALISM AND THE SEA

가제 : 해양 자본주의

저자 : Liam Campling, Alejandro Colas

출판사: Verso

발행일: 2021년 1월 5일 예정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경제, 역사

*** 자본주의의 발전과 해양 세계의 발전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연관성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책**

지구 표면을 둘러 싼 바다와 세계 자본주의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치 경제학 교수인 저자 리암 캠플링 교수는 세계 자본주의는 '해상 현상'이라고 지칭하며, 이 간단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바다와 오늘날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 해양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지금까지도 무역로, 전략적 공간, 금융 은행 및 공급망의 역할을 도맡고 있다. 화석 연료, 광물과 같은 유용한 자원을 품고 있는 해저 지대와 부동산 및 레저용으로 개발되고 해안선은 여전히 활발히 개발 및 주요 산업의 중심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실려오는 컨테이너들이 가득한 항구는 이제 세계 상업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선 사업에서 화물 운송, 크루즈선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 속에서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성장하여 상품들을 운송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해상 노예 제도와 그들의 고통스러운 속박의 결과가 남긴 유산, 즉 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과 선진 국제주의는 이제 전 세계의 해방 정치의 중심에 남아 있다. 이어, 거친 바다를 헤치며 나아갔던 해양 생물 탐사는 인간의 자본이 가진 힘이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뻗어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바다 연안의 세계는 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 조직들이 함께 얽혀 어떻게 재산을 계속 불리고 재순환 시켰는지 보여주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대양은 지구의 푸른 부분, 즉 바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산성화됨으로써, 우리 탄소 문명이 얼마나 많은 양의 해로운 독성 배출물을 내뿜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담하고 급진적인 이 책에서 캠플링 교수와 공저자 알레한드로 콜라스는 역사학적 및 지리학적 시각을 통해 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새롭게 조망하고, 바다와 관련된 정치, 경제, 생태 및 지정학에 대해 다루면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사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생산 방식을 분석해보면, 특징은 이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지향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지와 바다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단순히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초월해 뻗어 나가려는 인간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즉, 해상 공간과 자원을

찾고자 하는 투쟁 가운데에서 주권 투쟁, 착취와 같은 자본주의의 고유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두 저자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속성이 어떻게 바다와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적, 지리적 과정을 추적한다. '바다'와 '자본주의'라는 오랜 연관성을 가진 두 세계와 기후문제, 운송업등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그 연속성을 파헤쳐 보는 흥미로운 관점을 내세우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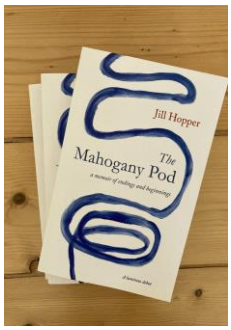
<목차>

서문: 끔찍한 곤경
일시성
공간
삶
제1장. 순환
'네거스 사건의 신속한 처리'
자본주의 속 해양적 요소
상품 거래 네트워크
위험 계산, 신용의 피해자들
바다를 통한 시장 통합
자본주의, 유통 및 생산
상용화 모델과 비평가들
순환과 해양 국경
(이하 생략, 총 6장 및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리암 캠플링 (Liam Campling)은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정치 경제학과 교수로 동대학의 Centre on Labour and Global Production에서 일하고 있으며 『Free Trade Agreements and Global Labour Governance』의 공저자 중 한 명이자, 「Agrarian Change Journal」의 편집자이다.

알레한드로 콜라스 (Alejandro Colás)는 의 University of London의 국제 관계학과 교수이다. 그는 『International Civil Society』의 저자이자, 『Food, Politics, and Society』의 공동 저자이다.



제목 : THE MAHOGANY POD

가제 : 마호가니 씨앗 주머니, 당신이 남긴 선물

저자 : Jill Hopper

출판사: Saraband

발행일: 2020년 2월

분량 : 222페이지

장르 : 회고록

*"사랑, 상실, 그리고 슬픔에 대한 아름다운 탐구서."- 『When I Had a Little Sister』의 저자, 캐서린 심슨

* 사랑하는 사람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회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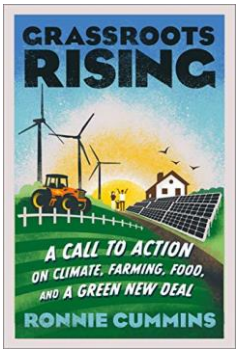
누군가와 사랑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 회고록의 저자 질 호퍼는 이십 대 초반, 그녀의 평생의 사랑이 된 아리프라는 남자와 런던 템스강 부근 오스니 섬에 있는 공동 주택에서 처음 그를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연둣빛 버드나무와 하루 종일 명랑하게 지저귀는 새들, 물위에 비친 햇살들로 가득한 이 집은 대도시에서는 구하기 힘든 꿈만 같은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집이었다. 원래 아리프는 저자의 친한 친구인 케이트의 오랜 친구였고, 아리프는 케이트 덕분에 이 집을 소개받아 오게 된 것이었다. 처음 케이트가 전화로 아리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리프는 원래 맨체스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암에 걸리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옥스포드로 돌아갔고, 병세가 호전되자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느 6월의 포근한 저녁, 아리프는 집을 둘러보기 위해 저자가 살고 있는 공동 주택으로 찾아왔다. 아리프는 키가 매우 컸고, 가늘고 검은 머리칼에 밝은 갈색 피부를 가진 남자였는데, 저자는 대체 왜 친구 케이트가 아리프가 그토록 매력적인 남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느껴졌을 만큼 그의 외모와 겸손하면서도 친근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본능적으로 그에게 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룸메이트가 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잔잔하고 포근한 사랑 속으로 푹 빠져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리프에게 남은 시간이 겨우 몇 달 밖에 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모두들 저자에게 그의 인생에 엮이지 말라며 그녀를 말렸지만, 이미 질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질은 아리프와의 사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사랑 아리프가 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이제 모든 슬픔이 끝났다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슬픈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결코 슬픔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슬픈 마음을 억누르는 것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행위'만큼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사실 그동안 아리프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과 기억을 애써 자신의 곁에서 밀어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가 남긴 편지들과 사진, 기념품들은 이제 다락방 어딘가 신발 상자에 있었고 그가 죽기 전 만든 믹스 테이프들을 한번쯤 들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과연 이 모든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저자는 어느 날 아리프가 남긴 이별 선물인 마호가니 나무 씨앗 주머니를 발견했고, 이 작은 물건을 통해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쌓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자신의 비극을 독특한 관점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는 이별 이후에도 결코 완전히 헤어질 수 없으며, 항상 그들이 우리 안에 일부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상실로 인한 고통에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담담하지만 섬세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온전히 살아가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슴 뭉클한 회고록이다.

<저자 소개>

질 호퍼 (Jill Hopper) 영국 에섹스 출생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어학은 전공한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일한 다음 런던으로 이주해 잡지 편집자로 활동했다. 또한 그녀는 여성 작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단체인 Imaginary Friends의 창립자이기도하다.



제목 : GRASSROOTS RISING
가제 : 기후위기 해결, 시민의 힘으로
저자 : Ronnie Cummins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환경

*** 환경 위기, 기후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서 전세계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류와 환경이 더불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상대적으로 기후 재앙에 대해 둔감한 편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린 뉴딜 (Green New Deal)'이라는 말이 주요 뉴스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기후 재앙에 앞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 위기,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 난민과 식량 전쟁 사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과 같은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 책에서 저자 로니 커민스는 **점점 우리 현실 속으로 파고드는 이 재앙들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행동'과 '농업 혁신'이 바로 답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소비자 농민 혁신, 정치적 변화 및 재생 금융에 기반한 '풀뿌리 재생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의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에서 역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 역시 저자가 가진 철학과 비슷한 개념들이 구현된 정책이지만, 저자는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환경 문제는 망가진 음식 공급 시스템과 더 결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농지와 목초지를 복원하는 재생 농업 기술을 실행하여 토양에 대량의 탄소를 따로 격리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모든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을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에서 이 변화의 흐름의 동력이 될 다음 4가지를 제시한다.

<u>1. 교육 및 인식 재고</u>-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실천하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과연 환경 재생 시스템에 쓰이는 돈인지,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지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u>2. 혁신</u>-농부, 목장 주, 숲과 습지를 돌보는 사람들 및 대중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혁신.

<u>3. 정책 변경</u>-여기에는 지역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공원 지구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된다. 현재 미국의 정책들은 월 스트리트 및 특정 대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들은 유기물, 재생 농업 및 자연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확장 되어야만 한다.

4. 자금 조달 및 투자-개인 투자자 및 공공 자금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그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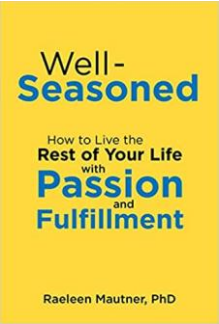
<목차>

1장. 재생을 위한 규칙들
2장. 재생: 빅 픽쳐
3장. 민중들의 의식, 정치적 이동성과 시장요구
4장. 탄소 농업, 숲 재건, 생태계 복원
5장. 정치와 공공 정책
6장. 공공 및 사적 투자
7장. 재생을 위한 글로벌 로드
8장. 재생을 향한 로드맵

<저자 소개>

로니 커민스 (Ronnie Cummins)는 유기농 농업 표준을 준수고 건강하고 공정하며 재생 가능한 식품, 농업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200 만 명 이상의 소비자로 구성된 비영리, 미국 기반 네트워크 단체인 OCA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의 설립자이자 이사이다.

제목 : WELL-SEASONSED
가제 : 행복한 중년을 위한 가이드북
저자 : Raeleen Mautner
출판사: QUILL DRIVER BOOKS
발행일: 2020년 9월 29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중년의 나이에 좀 더 새롭고 행복하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모두들 이상적인 인생을 꿈꾼다. 사랑 많고 인정 많은 부모님 손에서 자라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노후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 싸여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풍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말 그대로 '이상'일뿐, 이런 완벽한 인생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도달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사랑했던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변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며 이제 은퇴 이후의 삶, 노년,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일찍이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책에서 삶은 '춤'이 아니라 '투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본질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른 기대도 전혀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할 것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만족하라고 충고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심리학자인 이 책의 저자 랠린 마운터는 이에 더불어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녀는 우리들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이 투쟁을 끝내고 인생을 통해 삶과 더불어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걱정, 자기 파괴적 사고, 비생산적인 스트레스, 정크 푸드 중독, 외로움, 지루함, 좌식 중심 생활, 상실이 가득한 현실을 거부하는 태도, 나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믿는 등의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들여다보고, 삶에 대한 통제력, 독립성, 즐거움, 개인적 성취, 정서적 연결, 실질적 만족감, 행복한 기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건강, 재정, 개인적인 관계를 정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알려준다. 현대 심리학적 지식과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결합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직접 통제하고,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유연성을 개발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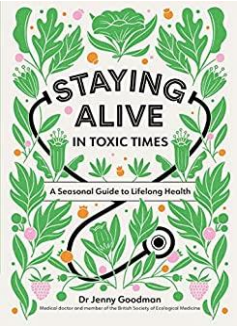
책이다.

<목차>

1장. 안티-에이징 블루스를 위한 해독제로 행복을 만들어라
2장. 몸과 사이 좋게 지내기
3장. 광기를 덜어낸 몸 만들기
4장. 기쁨으로 빛이 날 때까지 당신의 성격을 가다듬어라
5장. 신중하게 행동을 선택하라
6장. 도전과제들을 다룰 때 '복사 전략'들을 실습하라
7장. 몸을 젊게 만드는데 마음을 사용하라
8장. 사랑으로 삶을 채워라
9장. 사회적 연결망을 다듬어라
10장. 적재적소에 돈을 투자하라

<저자 소개>

랠린 마운터 (Raeleen Mautner) 박사는 교육 /인지 심리학 연구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Living la Dolce Vita 등 여러 책들과 기사를 쓴 바 있으며 전 대학 심리학 교수, 체중 감량 행동 주의자 및 문화간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마운터 박사는 또한 예일 대학교와 함께 노인들과 코네티컷 재향 군인 보건 관리국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제목 : STAYING ALIVE IN TOXIC TIMES

가제 : TOXIC TIMES: 건강한 나를 위한 무독성 가이드

저자 : Jenny Goodman

출판사: Yellow Kite

발행일: 2020년 1월 2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건강

* 영국 아마존 관련 분야 1위

* 일년 내내 밝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위한 최적의 안내서

저자인 제니 굿맨 박사가 1976년 처음 의대에 들어갔을 무렵, 그녀가 갖고 있던 질문은 세 가지였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굿맨 박사는 의대생과 수련의를 거쳐 그 답을 생태 의학에서 찾았다. 생태 의학에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양 의학과 환경 의학이다. 영양 의학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환경 의학은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결국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들과 주변환경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패션 유행을 따라가듯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그 시기에 화제가 되는 보조 식품들을 섭취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이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혹은 나에게 필요한 건강 보조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이 특정 보조제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도 모르고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이자, 강사, 영양사인 굿맨 박사는 우리의 몸과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이 '독성의 시대'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녀가 택한 식습관 계획은 바로 제철에 나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계절에 맞추어 먹고 생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굿맨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이었던 소피아와 벤 두 부부를 통해 자신의 몸에 맞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격했다. 소피아는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던 중 자신에게는 비타민 D 가 필수임을 깨달았고, 극심한 복통으로 암까지 의심했던 벤은 자신이 매일 아침마다 먹던 식사에 들어가던 기름 성분과 소시지 때문에 이 복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례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굿맨 박사는 이 책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법과 우리 신체 안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도록 돕는 무수한 식이 요법과 건강한 식습관을 알려 준다. 또한 그녀는 실내 오염, 건초열, 계절성 정서 장애와 같은 계절별로 주의해야 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소개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피로에 지치고 아프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 이 책은 행복한 장수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원칙과 기초
1 장 : 겨울 (2 월, 12 월)
2 장: 봄 (3 월, 4 월, 5 월)
3 장: 여름 (6 월, 7 월, 8 월)
4 장: 가을 (9 월, 10 월, 11 월)
5 장: 당신의 인생의 계절, 어떤 연령대이든 잘 사는 법
6 장: 영양과 맛, 영양소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법
7 장: 톡스/ 디톡스,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인간도 병들게 한다

<저자 소개>

제니 굿맨 (Jenny Goodman) 박사는 의사, 방송인 및 강사이다. 그녀는 일반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영양 및 환경 의학에 대한 대학원 교육 과정을 을 실시하여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변화시켰다. 또한 굿맨 박사는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조사하고 치료하기 위해 인간 영양 및 생화학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20 년 이상 영양 및 환경 의학을 실천해 왔으며 수많은TV 및 라디오 쇼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자신이 연구한 바에 대해 열정적으로 알렸다.